노사발전재단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9.(목) 14:00 (2026. 11. 20.(금) 조간)

노동시간 변화로 그리는 일터혁신

- 노사발전재단 2026년 제8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 및 변화 관리 방안 공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아주르홀에서 '2026년 제8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일환으로 주4.5일제의 기업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8차 포럼에서는 '**노동시간 변화로 그리는 일터혁신**'이란 주제로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례가 발표됐다.

첫 번째 사례기업인 **디스플레이허브㈜**(서울 중랑구, LED 전광판 설계·시공업, 대표 김동협)는 시공 기술 인력까지 100%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2021년 8명에서 2026년 37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인사체계가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2024년 이직률이 44%에 이르자, 청년 인재를 붙잡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신청**했다.

회사는 직군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무·영업직**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씩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기술직**은 주 40시간을 유지하되 **고정OT를 전액 기본급에 산입**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5시에 전 직원이 유급으로 조기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되, 현장 일정 때문에 이날 조기 퇴근이 어려운 기술직은 해당 시간을 유급휴가로 저축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생산성 측면은 사무·영업직은 AI 활용 확대**로, **기술직**은 예정된 기한보다 작업을 일찍 마칠 때 지급하는 **조기 완수 수당(온타임 수당)**으로 보완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38.3시간에서 36.2시간으로 줄었고, 이직률은 16%로 낮아졌다**. 2026년 7월에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승인도 받았다. 김동협 대표이사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휴식에는 단절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현장 직원이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했기에 모든 직군이 단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 사례기업인 **㈜바이오프로테크**(강원 원주, 의료기기 소모품 제조업, 대표 김병전)는 글로벌 의료기기 소모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생산직 직원들의 일평균 2시간 초과근무가 관행화되면서 번아웃 가속화, 인력 이탈, 채용 한계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연장근로에 기댄 '양(量)의 경쟁'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질(質)의 혁신'을 목표로 2026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시작했다.

먼저, 제도 도입에 앞서 직무조사와 직무특성 분석을 실시해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무직은 주 1회 4시간 단축(개인별 선택 반일 운영), 생산직은 매주 금요일 2시간 단축 방식의 직군별 차등 도입안을 설계**했다. 특히 임금 보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산직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임금 보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보전수당 신설** 방침을 사전에 확정했다. 아울러 **사무직에는 AI 활용 전문 교육 및 Claude Pro 지원·집중근무시간제 도입**을, **생산직에는** AI 자동검사 장비 도입과 제안제도, 신규 인력 채용(10명)을 병행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췄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신청·승인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도 구축했다.

그 결과, ㈜바이오프로테크는 **전 직군에 걸쳐 주 4.5일제 도입안을 완성했으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영진 주도가 아닌 노사 공동 설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높였고, 이직률 감소와 채용 경쟁력 강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 설계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6년 제8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계획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보령 (02-6021-1221)
		담당자	과 장	김찬솔 (02-6021-1026)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팀	책임자	팀 장	김현규 (02-6021-1188)
		담당자	선임전문위원	이성민 (02-6021-12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6년 제8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일터혁신의 중요성 증대

○ 근무제도와 일하는 방식, 임금체계개선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일터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의 현장 적용 가능성 모색

Ⅱ 개 요

○ 일 시: 2026. 11. 19.(목), 14:00~16:00

○ 장 소: 피스앤파크 컨벤션 아주르홀 4층(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 참 석 자: 일반기업, 일터혁신 컨설턴트, 일터혁신 전문가 등 100여명

○ 포럼주제: **노동시간 변화로 그리는 일터혁신**

○ 주요내용

- 주4.5일제 특화 컨설팅 참여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설계 과정과 성과
- 제도 도입 전 검토해야 할 과제와 실제 도입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방안 공유

Ⅲ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개회 및 내빈 소개, 인사말	김보령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총괄팀장
14:10~14:35	(25분)	디스플레이허브 (청년이 찾아오는 현장형 주4.5일제)	김동협	디스플레이허브 대표
14:35~15:00	(25분)	바이오프로테크 (장시간 근로사업장의 주 4.5일제 공식)	이성제	바이오프로테크 생산본부장
15:00~15:10	(10분)	휴 식		
15:10~15:50	(40분)	종합토론	박종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홍운기	건국대학교 교수
			권준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15:50~16:00	(10분)	총평 및 폐회		

※ 포럼 현장 참석은 노사발전재단 (02-6021-1026)으로 문의